

일본어교육을 위한 일본어 접사 연구*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安 增 煥**

(e-mail : ajw7340@hanmail.net)

目 次

1. 들어가기
 2. 대조적 관점에서의 접근
 3. 일본어 접두사 교육정보
 4. 일본어 접미사 교육정보
 5. 결론
-

1. 들어가기

문자언어 영역의 외국어 교육은 일반적으로 문법 혹은 구문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어휘 역시 외국어 교육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휘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법은 계속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그러한 관점에서 일본어 접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어 어휘교육 방법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교육 대상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로 하고, 피교육자의 일본어 능력수준은 중급이상으로 한다.

필자가 교육대상을 한국인 학습자로 제한시킨 것은 접사가 개입된 파생어가 일본어 구문에 나타나면, 한국어와는 다른 구조로의 변형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문이다.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한남대학교 교비연구비에 의해 작성되었음.

** 한남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 (1)a. 何か忘れていませんか。
 b. 何かお忘れですか。
 (뭔가 잊으셨습니까?)
- (2)a. このごろ彼はよく学校を休みます。
 b. このごろ彼は学校を休み勝ちです。
 (요즘 그는 학교를 자주 빠집니다.)

(1b)와 (2b)에서는 각각 접두사 「お-」와 접미사 「-勝ち」가 개입하면서 동사술어문이 명사술어문 혹은 형용(동)사 술어문으로 바뀌고 있는데, 한국어 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쉽게 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접사가 개입한 단어가 일본어문에 나타나게 되면 유사했던 두 언어의 구조에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중급이상의 한국어인 일본어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이들 일본어 접사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대로, 단어의 내부구조를 연구하는 형태론에서는 단어를 어형에 의해 단순어와 합성어로 구분하고, 합성어는 다시 복합어와 파생어로 나눈다. 복합어는 어기와 어기가 결합된 합성어이고, 파생어는 어기에 접사가 붙은 합성어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접사는 파생어를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접사는, 결합하는 어기에 일정한 문법적 의미를 더하거나, 접사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의미를 어기에 보조적으로 작용시킨다. 때문에 파생어에서 실질적 의미는 어기가 담당하고, 접두사와 접미사 등의 접사는 의미면에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파생어를 생성하는 접사는 언어 일반에 나타나는 단어의 구성요소로 한국어에도 물론 있다. 그러나 「素足」와 「멘발」, 「初恋」와 「첫사랑」 그리고 「学生らしい」와 「학생답다」, 「矛盾だらけ」와 「모순투성이」처럼 고유어에서 접사끼리 일치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때문에 「社長あての手紙(사장님 앞으로 온 편지)」나 「高校の校長あがりの田中さん(고등학교 교장출신인 다나카씨)」 등 접사가 개입된 단어가 구문에 나타나면 당황하는 경향이 있다. 접사가 교육현장에서 교수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다. 그렇다면 일본어 교육현장에서 일본어 접사를 교수할 때, 교수자 입장에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다음 네 가지, 즉 접사의 개념 및 특징, 접사의 종류 및 분류, 접사 각각의 생산성, 한국어로 수용할 때의 주의점 등으로 생각한다.

한편 필자가 접사교육의 일본어 학습자를 중급이상의 일본어 능력자로 제한시킨 것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대개 중급 단계에 들어서면 어휘체계나 어휘구

조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앞에서 밝혔듯이 이 단계에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 교수되어야 할 일본어 접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때문에 홍사만(2002) 등에서처럼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한국어와의 대조를 주된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접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교육현장에서 전달되어야 하는 바, 2장에서는 대조적인 관점에서의 특징이 언급되리라고 본다. 본 연구가 대조적인 관점에서 고찰된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이다. 즉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어휘교육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과, 단어형성이라는 형태론적 고찰에 머물지 않고 ‘어휘와 문법’이라는 측면에서 접사가 개입된 일본어문을 한국어로 수용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도 일부 분석한다는 점 등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 2장에서는 효과적인 접사교육의 방법으로 한국어 접사와의 대조적인 방법이 제시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일본어 접두사, 4장에서는 일본어 접미사에 대한 교육적 정보가 정리될 것이다.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어 진행되는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일본어 접두사와 접미사에 보다 효과적인 교수방법.

둘째, 일본어 접두사와 접미사에 대한 제반 정보.

셋째, 일본어 파생어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주의할 점 등.

2. 대조적 관점에서의 접근

학습자가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보면, 학습자가 사용하는 모어와의 비교 혹은 대조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당연한 현상이다. 따라서 일본어 접사의 교육도 먼저 한국어 접사를 살피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처럼 언어구조가 유사한 경우는 이해의 효과가 어떤 이론적인 설명보다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어 한국어쪽을 살피기로 한다. 먼저 접두사이다.

새-: 새까맣다, 새빨갳다, 새아씨, 새싹 ...

덧-: 덧니, 덧신, 덧없다, 덧불이다, 덧나다 ...

푹-: 푹내기, 푹사랑, 푹나물 ...

흙-: 흙아비, 흙어미, 흙몸 ...

휘-: 휘젓다, 휘감다, 휘두르다 ...

뒤-: 뒤엉키다, 뒤집다, 뒤틀다 ...

위에 제시된 접두사를 보면 하나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즉 ‘새-’나 ‘덧’처럼 여러 품사의 어기에 붙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명사에 붙는 ‘뚫-’과 ‘홀-’ 혹은 동사에 붙는 ‘휘-’와 ‘뒤-’처럼 후접하는 어기의 품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¹⁾. 이러한 현상은 일본어도 마찬가지이다.

- おー：お名前、お忙しい、お元気、お帰り...
- まー：真夏、真新しい、真正直、真っ直ぐ ...
- ものー：ものごころ、物好き、ものたりない、物悲しい ...
- 初ー：初恋、初雪、初仕事、初耳 ...
- 素ー：素顔、素手、素飯、素話 ...
- うらー：うらはずかしい、うらさびしい、 ...
- かー：か弱い、か細い

즉 「おー」「まー」「ものー」 등은 복수의 품사 어기에 접속이 가능하지만, 「初ー」와 「素ー」는 명사에, 「うらー」와 「かー」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등 어기의 품사에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접두사 분류는 후접하는 어기의 품사에 근거하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것은 후술한다.

그러나 접미사는 다르다. 한국어 접미사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기로 한다.

- 이: 길이, 높이, 넓이 ...
- 음(口): 웃음, 걸음, 누름 ...
- 답다: 학생답다, 남자답다, 한국인답다 ...
- 스럽다: 멋스럽다, 변덕스럽다, 복스럽다 ...
- 거리다: 출렁거리다, 어른거리다, 넘실거리다 ...
- 씩: 조금씩, 하나씩, 천 원씩
- 꾸러기: 잠꾸러기, 심술꾸러기, 장난꾸러기 ...
- 뜨리다: 넘어뜨리다, 무너뜨리다, 떨어뜨리다 ...

위에 예시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접미사는 대개가 어기에 새로운 품사성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가령 ‘-이’나 ‘-음’은 명사를 파생시키고, ‘-답다’나 ‘-스럽다’는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마찬가지로 ‘-거리다’는 동사를, 그리고 ‘-씩’은 부사를 파생시킨다. 물론 ‘-꾸러기’나 ‘-뜨리다’처럼 선행하는 어기의 품사성을

1) 한국어 접두사는 대개가 명사 혹은 동사와 결합한다. ‘홀-, 수-, 암-, 참-, 날-’ 등은 명사와, ‘들-, 엮-, 들이-, 설-’ 등은 동사와 결합하는 접두사이다.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떻든 접미사는 파생어의 품사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 접두사와 구별된다. 일본어 접미사도 마찬가지로 이다.

- 一さ：長さ、深さ、静かさ、適当さ …
- 一Φ：眠り、踊り、遊び、喜び …
- 一い：赤い、青い、丸い、四角い …
- 一らしい：学生らしい、男らしい、日本人らしい …
- 一やか：おだやか、さわやか、にぎやか …
- 一勝ち：あり勝ち、忘れ勝ち、病気勝ち …
- 一がる：嬉しがる、悲しがる、寂しがる …
- 一まる：高まる、深まる、広まる、始まる …
- 一ずつ：一人ずつ、少しずつ、千円ずつ …
- 一ごっこ：鬼ごっこ、学校ごっこ、電車ごっこ …

형용(동)사와 결합하는 「一さ」나 동사의 연용형을 가리키는 무형의 접미사는 형용(동)사나 동사를 각각 명사화시킨다. 「一い」와 「一らしい」 등은 명사를 형용사로, 「一やか」와 「一勝ち」는 형용동사를 파생시키고 있다. 「一がる」와 「一まる」처럼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도 있고, 「一ずつ」처럼 부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도 있다. 물론 일본어에도 「一ごっこ」처럼 어기가 갖는 품사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도 있다. 한국어 접사를 설명하면서 접사의 일반적인 특징에 접근하는 이러한 방법이 학습자의 이해 증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까지 한국어 접사와 비교하면서 일본어 접사의 특징을 살폈다.

이제 일본어 접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윤영민(2009)의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과 일본어 『日本国語大辞典』 비교에서는 한국어 접사가 509개, 일본어 접사가 1048개로 제시되어, 일본어의 접사가 한국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²⁾. 일본어 교육현장에서 이 모두를 다룰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일본어 교육을 위해 필요한 일본어 접사의 양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日本語教育事典(1982)』에는 조수사 25개를 포함해 77개의 접사가 소개되고 있다³⁾. 그러나 여

2) 그러나 동일하게 윤영민(2009)에 나타난 야마시타 기요(山下喜代, 2008)의 『日本語教育のための合成語のデータベース構築とその分析』에는 일본어 접사가 592개로 나타나 한국어보다 90개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

3) 日本語教育学会編(1982), 『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pp326~327.

기에는 「ことひと(異人)」의 「こと一」나 「そだたく」의 「そ一」 등 현대 일본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접사가 실려 있는 등 일본어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일본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접사로 어떤 것이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2학년 상권부터 6학년 하권까지 10권을 조사해 보았다⁴⁾.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부수적인 사실 중 하나는 대부분의 접사가 동화나 소설 같은 완전한 구어체문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설명문이나 감상문과 같은 문장체에서는 접사가 그다지 많이 출현하지 않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일본어 고유어 계통의 접사에 관한 것으로, 「第三」과 「大都市」의 「第一」 혹은 「大一」와 같은 한자어 계통의 접두사는 예외가 된다. 이러한 사실은, 중급이상의 일본어 교육에서 접사교육은 소설과 같은 구어체문 분석에 크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접두사와 접미사로 구분해 제시한 것들이 고유어 접사를 중심으로 일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추출한 것들이다⁵⁾.

(접두사)

おかず, 小川(おがわ), 小石(こいし), ひと口, 大にぎわい, 大すき, もの音, 子ぎつね, ごはん, ふたご, 真下, まっか, まんまる, かた側, すばやい, どでかい, 気高い, たやすい, いくつ, まるぼうず, ひた走り,

(접미사)

絵かきさん, 王さま, 黒っぼい, つばめくん, どうぶつたち, ひとりぼっち, 手ぶり, ばかりしい, 二人とも, 作り方, のり手, ものども, あざだらけ, かなしさ, 世界じゅう, おいかけっこ, はん(班)ごと, ぼくら, さびしがる, 弱み, 一本ずつ, まるまる, おにごっこ, むすび且, 七つ且, 人並み, お兄ちゃん, 友だちどうし, 道ぞい, もぎたて, 四角い, さしてがましい, 思われがち, 住みか, なりすぎる, 吉四六どん, 今朝がた, 年ごろ, 望みどおり, ねむたげに, かじ屋, おこりんぼう, 練習したい, 七十年あまり, うめっぱなし, 血みどろ, まるめる, 動きよう, ばか正直め, かくれか, 大人びる, 乱れ放題, 小道伝い(づたい), 波打ちぎわ, ぼうや,

위의 파생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접두사 21개와 접미사 55개가 추출되었으며, 이들 파생어들의 나열순서는 조사 대상이었던 교과서의 저학년용에서부터 나타나는 순서에 따른 것으로 무작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이들 접사를 분석해 보면, 예상했던 대로 일본어 접사의 기본적인

4) 『国語』 2上~6下, 光村図書出版, 1989

5) 한자어 계통의 접사도 설명의 필요를 요하는 것은 일부 넣었다.

것들은 거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どでかい」의 「どー」나 「吉四六どん」 「おこりんぼう」의 「一どん」 「一んぼう」처럼 일상적인 것이 아니거나 기본적인 수준을 넘는 접사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접미사 중 조수사도 15개 정도 발견되었으나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⁶⁾. 「一匹」 「一頭」 「一本」 「一隻」 등 대부분이 한자어로 음독되고 있어,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수용에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어질 3장과 4장에서는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어 상술하기로 하는 바, 3장과 4장에서 다룰 접사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추출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3. 일본어 접두사 교육정보

먼저 일본어 접두사를 어종에서 보면, 고유어 계통 외에 「被災地」 「非常識」 「不参加」 「無遠慮」와 같은 한자어 계통과 「ノーコメント」 「アウトドア」 「サブタイトル」 「ハイクラス」 같은 외래어 계통의 접사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한자어와 외래어에서 상당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유어 계통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⁷⁾. 본고에서 일본어 교육을 위해 선정한 일본어 접두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이들은 필자가 2장에서 조사한 일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추출한 것과 『日本語教育事典』(1982) 및 森岡健二(1994) 등에서 일부 선정한 것이다.

お一、ご一、小(お)一、小(こ)一、おお一、もの一、子一、ひと一、ま(まっ、まん)一、片一、素一、ど一、生(なま)一、た一、いく一、まる一、ひた一、初(はつ)一、生(き)一、糞一、初(うい)一、うら一、気(け)一、いけ一、えせ一、新(にい)一、ひが一、ほの一、か一、ひ一、

2장에서 언급한 대로, 결합하는 어기의 품사성에 따라 이들 접두사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6) 추출된 것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一り、一つ、一本、一匹、一頭、一倍、一通、一個、一冊、一艘(そう)、一隻、一枚、一粒、一文、一羽」

7) 이것은 결코 한자어 계통의 접사 등은 교육을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령 한자어 계통의 접두사 중에는 명사 어기를 형용동사화시키거나 한국어와 다른 파생어를 생성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예) 「お礼を言わないとは、非常識な人だな。」 「自分ならこのような不人情なことはするまい。」

명사어기와 결합하는 것: ご都合、大通り、小川⁸⁾、子犬、二月⁹⁾、片想い、素足、いくつ、丸坊主、ひた隠し、初恋(はつこい)、生娘¹⁰⁾、糞度胸¹¹⁾、初孫(ういまご)¹²⁾、えせ学者、新妻、ひが耳、

형용사어기와 결합하는 것: うら寂しい、か細い、ひ弱い、

복수의 어기와 결합하는 것: お弁当·お美しい·お上手、小石·小難しい·小綺麗、もの寂しい·物静か、真っ先·真っ白い、真っ赤、どぎつい·どけち、気高い·気圧される、たやすい·たばかる、いけ好かない·いけぞんざい、ほのぐらい·ほのめかす、

각주 처리한 것에서 보듯이 예외가 되는 것도 있고 품사성이 다른 어기와 결합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어 교육현장에서의 접두사의 분류방법은 어기의 품사성에 따르는 것이 우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외가 되는 것이 많지 않고, 또 복수의 품사와 결합하는 것들도 어기의 품사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들 접두사의 의미이다. 파생어의 중심적 의미는 여기에 의해 결정되지만, 파생어 전체의 의미형성에는 접두사가 갖는 보조적 의미도 중요하다. 즉 접두사가 갖는 독자적인 의미가 어기의 의미에 보조적으로 작용하면서 파생어 전체의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 접두사는 「お」나 「ご」처럼 완전히 문법적 의미만 갖는 것도 있지만, 대개의 접두사는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고, 많은 경우에 이것은 차용하는 한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일본어에서 의미부분은 한자로, 문법부분은 가나(仮名)문자로 표기에서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접두사의 의미도 차용하는 한자에서 유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선 한자로 표기되고 있는 접두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령 「大一」는 큰 것을, 「片一」는 한쪽을, 「素一」는 치장이 없는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어기가 이들과 결합했을 때의 파생어 전체의 의미는 상당 부분 유추가능하다. 먼저 한자를 차용하고 있는 접두사를 중심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들 접두사는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大一」(큰-) : 大通り、大男、大降り、大口、大当たり、大路、大柄、...

8) 예외로 「小暗い」가 있다.

9) 예외로 「一先ず」처럼 부사와 결합하는 것도 있다.

10) 예외로 「生真面目」가 있다.

11) 예외로 「糞真面目」가 있다.

12) 예외로 「初々しい」가 있다.

- 「小一」(작은-) : 小石、小米、小太り、小屋、小出し、小恥ずかしい、...
- 「子一」(새끼-) : 子犬、子牛、子馬、子猫、子やぎ、子猿、...
- 「一一」(하나의-) : 一月、一晚、一群れ、一眠り、一安心、一荒れ、...
- 「片一」(한쪽의-) : 片想い、片恋、片道、片足、片親、片恨み、...
- 「素一」(본래의-) : 素足、素顔、素手、素飯、素浪人、素話、...
- 「幾一」(몇-) : いくつ、いくら、幾度、幾人、...
- 「丸一」(완전한-) : 丸坊主、丸焼き、丸裸、丸木、丸呑み、...
- 「初一」(처음의-) : 初恋、初舞台、初氷、初耳、初雪、...
- 「生一」(순수한-) : 生娘、生息子、生薬、生醤油、生真面目、...
- 「真一」(진짜의-, 순수한-) : 真新しい、真正直、真上、真つ赤、真ん中、...

때문에, ‘새댁’을 가리키는 「新妻(にいづま)」나 ‘신참’을 가리키는 「新手(あらて)」 같은 경우는 각각의 접두사가 「にい一」와 「あら一」로 다르지만, 이들이 차용하는 「新」이라는 한자로부터 이들 접사가 개입한 파생어의 의미유추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의미유추는 다음과 같은 접두사에도 적용된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는 차용된 한자를 표기하지 않지만, 사전 등에서 차용한자를 확인할 수 있고, 그 한자에서 접두사의 의미유추가 가능해진다.

- 「えせ(似而非)一」(가짜-) : えせ学者、えせ医者、えせ親、えせざいはい、...
- 「ひた(直)一」(오로지-) : ひた隠し、ひた走り、ひた謝り、...
- 「ひが(僻)一」(잘못된-) : ひが目、ひが耳、ひが事、ひが覚え、...
- 「うら(心)一」(마음의-) : うら悲しい、うら寂しい、うら恥ずかしい、...
- 「ほの(仄)一」(희미한-) : ほのか、ほのぼのと、ほの暗い、ほのめかす、...

이러한 것은 결국 접두사 대개가 독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가리킨다. 물론 한자를 차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의미유추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¹³⁾, 「か細い」「ひ弱い」「たやすい」「いけぞんざい」「どぎつい」처럼 한자를 차용하지 않는 접두사들도 있다. 한자를 차용하지 않는 접두사군의 특징 하나는 독자적인 의미에 의한 보조적 역할보다는 일반적으로 어기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많으며, 생산성도 「ど一」를 제외하고는 아주 낮다.

- 「か一」 : か弱い、か細い、
- 「ひ一」 : ひ弱い、

13) ‘어쩐지’ 혹은 ‘정말이지’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 「もの一」는 「物」라는 한자를 차용하지만, 이 한자만으로는 그러한 의미유추가 쉽지 않다. 「もの寂しい、物静か、物騒がしい、物珍しい、物凄むい、...」

「たー」：たやすい、たばかる、

「いけー」：いけずうずしい、いけ好かない、...

「どー」：ど真ん中、どぎつい、ど偉い、どけち、ど下手、...

이제 접두사 교육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 두 가지만 더 살피기로 한다. 하나는 한자로 표기되는 접두사 중에는 음독되는 경우를 포함해 복수의 읽는 방법이 있어, 각각의 읽는 방법에 따라 선택되는 어기를 달리하는 것들이다. 여기에서는 「小ー」와 「初ー」를 예로 기술한다¹⁴⁾.

「小(しょう)ー」：小学校、小会派、小冊子、...

「小(こ)ー」：小遣い、小金、小麦、小物、小言、小道、小半日、小細工、小馬鹿、...

「小(お)ー」：小川、小舟、小止み、小父、...

「初(しょ)ー」：初対面、初感染、初一念、...

「初(はつ)ー」：初秋、初耳、初湯、初詣で、初水、初役、初場所、初舞台、初公判、...

「初(うい)ー」：初子、初孫、初陣、...

우선은 고유어 접두사 「小(こ)ー」와 「小(お)ー」, 「初(はつ)ー」와 「初(うい)ー」의 변별이다. 이들은 생산성에서 차이를 보여, 「小(こ)ー」나 「初(はつ)ー」는 생산성이 높은 반면에, 「小(お)ー」나 「初(うい)ー」의 경우는 일부 아주 제한된 어기와만 결합한다. 한편, 존경의 접두사 「お」와 「ご」의 선택 과정에 적지 않은 예외가 있는 것처럼¹⁵⁾, 한자로 표기되는 일본어 접두사 중 몇 개는 동일한 현상을 보여준다. 가령 위에서 밑줄이 있는 파생어를 보면, 「小半日」나 「初舞台」처럼 음독 한자어 앞에 한자어 계통의 접두사가 아닌 고유어 접두사가 오는 것도 있어 교육현장에서는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가 만들어지면서, 한국어 구문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명사구조로의 변형이다. 이런 것은 주로 존경의 의미를 갖는 「お」와 「ご」가 개입된 파생어구문에서 나타난다.

(3) 外でお客さんがお待ちです。

(4) 現在お乗りの車の車種は何ですか。

(5) 今お使いのブラウザに不便はありませんか？

14) 접두사 「小ー」「初ー」는 읽는 방법과 무관하게 의미상으로는 각각 「작은-」「처음의-」라는 뜻을 갖는다.

15) 한자어 앞에는 일반적으로 「ご」가 선택되나, 주지하는 대로 다음과 같은 예외가 많이 나타난다. 「お茶、お電気、お掃除、お菓子、お行儀、...」

- (6) ご購入のお客様には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
- (7) ご質疑の中でお答えできることからまず申し上げます。
- (3) ‘밖에서 손님이 기다리십니다.
- (4) ‘현재 타고 계신 자동차의 차종은 무엇입니까?
- (5) ‘지금 사용하시는 브라우저에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 (6) ‘구입하신 손님에게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 (7) ‘질문하신 가운데 대답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어 존경의 접두사 「お」에는 동사를 명사화시키면서 그 동사에 존경의 의미를 부과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은 접두사 「ご」에도 적용되며, 한국어 구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어로의 수용과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위에 제시된 예문을 비교해 보면, 「お」나 「ご」가 개입된 일본어 명사 부분이 한국어에서는 모두 동사형태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은 접두사 교육이 단순히 어휘영역에 머물지 않고 구문비교에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일본어 접미사 교육정보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어 접미사도 어종에서 보면, 고유어 접미사 외에 「可能性」 「映画化」 「機械的」와 같은 한자어 계통과 「オリエンタリズム」 「バイオリニスト」 「エゴイステック」 같은 외래어 계통의 접미사가 있다. 본고는 접두사의 경우와 동일한 관점에서 일본 고유어 계통의 접미사를 중심으로 기술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다른 어종의 접미사도 일부 다루기로 한다. 윤영민(2009)에 의하면 『日本国語大辞典』에 806개의 접미사가 등재되어 있다. 본고는 이들 모두를 살필 여력을 갖지 못한다. 그 대신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日本語教育事典』에서 분류해 놓은 것과 필자가 일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 추출한 것 및 森岡健二(1994) 등에서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여기에는 조수사와 단위사는 제외된다.

一殿、一さま、一さん、一君、一ちゃん、一どん、一め、一方(がた)、一たち、一ども、一ら、一おき、一ぼっち、一ぶり、一らしい、一とも、一方(かた)、一手、一だらけ、一さ、一じゅう、一ごと、一がる、一み、一ずつ、一ごっこ、一目、一子(こ)、一並み、一どうし、一たて、一가け、一い、一がましい、一가치、一か(家)、一가타、一どおり、一げ、一屋、一んぼう、一しだい、一あまり、一っぱなし、-みどろ、一く、一め

る、一まる、一よう、一びる、一放題、一ぎわ、一氣(け)、一めく、一めかす、一やすい、一にくい、一よい、一がたい、一づらい、一る、一ふる、一だつ、一つく、一じみる、一ばむ、一過ぎる、一がけ、一ぎみ、一あがり、一ざま、一くさい、一っこい、一っぽい、

접미사는 접두사와는 달리 선행어기가 갖는 품사성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류기준은 흔히 파생어의 품사성에 따른다. 물론 접미사 파생어 중에도 어기의 품사성을 바꾸지 않고 유지시키는 것들이 있지만, 접미사 파생어의 분류는 파생어의 품사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의 접미사를 그러한 관점에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품사변경과 무관한 것: 田中太郎殿、田中太郎さま、田中さん、田中君、田中ちゃん、田中どん、田中め、あなた方、あなたたち、君ら、わたくしども、二日おき、一人ぼっち、三人とも、あざだらけ、血みどろ、男どろ、世界じゅう、日ごと、革ごと、十人あまり、人並み、予想どおり、ゆかたがけ、三階建て、人次第、鬼ごっこ、社長あて、

명사파생 접미사: 暑さ、深み、読み方、言い様、書き手、焼き立て、開けっぱなし、寒け、暮れ方、疲れ気味、食べ放題、病み上がり、帰りざま、終り次第、話しぶり、甘えん坊、

형용사파생 접미사: 四角い、子供らしい、忘れっぽい、押し付けがましい、わかりやすい、わかりにくい、言いがたい、住みよい、歩きづらい、汗くさい、

형용동사파생 접미사: 病氣勝ち、早め、うれしげ、

동사파생 접미사: サボる、懐かしがる、高まる、高める、大人びる、春めく、冗談めかす、殺気立つ、上品ぶる、年寄りじみる、汗ばむ、がたつく、飲み過ぎる、

부사파생 접미사: 一人ずつ、

이 가운데 품사변경과 무관한 접미사들은 모두가 명사어기와 결합하면서 명사라는 품사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들이다. 따라서 명사파생 접미사는 명사가 아닌 어기가 접미사와 결합하면서 명사성을 갖는 파생어를 생성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접미사 가운데 「一方」 「一次第」 등은 품사변경과 무관한 것과 명사파생어를 만드는 것 등 두 곳에 모습을 보이는데,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다른 경우이다. 「あなたがた」 「先生方」에서는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고 「暮れ方」 「明け方」에서는 때의 의미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人次第」 「結果次第」에서는 “나름”이라는 의미이고 「終り次第」 「着き次

第」에서는 ‘~하는 대로’라는 의미로 구분된다. 물론 「涙気味・太り気味」「雨上がり・病み上がり」「勉強ぶり・話しぶり」「けちん坊・甘えん坊」처럼 이런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것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접미사 분류는 파생어의 품사에 따르는 것이 일본어교육에서는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접미사의 의미이다.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접미사도 단순히 여기에 특정한 문법성만을 첨가해 주는 것과, 어느 정도 자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있다. 물론 둘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는 쉽지 않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문법적 의미만 갖는 것들이다.

문법적 접미사: 一殿、一さま、一さん、一君、一ちゃん、一どん、一め、一がた、
一たち、一ら、一ども、一さ、一み、一い、一る、一がる、一まる、一める

이것들을 문법성에 따라 다시 하위분류해 보고, 일본어 교육에 필요한 설명을 덧붙이기로 한다.

- ① 존칭 비칭 등의 문법성: 田中太郎殿、田中太郎さま、田中さん、田中君、田中ちゃん、田中どん、田中め、
- ② 복수의 문법성: あなた方、あなたたち、君ら、わたくしども、
- ③ 명사파생: 暑さ、高さ、静かさ、適当さ、深み、甘み、…
- ④ 형용사파생: 四角い、丸い、赤い、白い、茶色い、…
- ⑤ 동사파생: サボる、ダブる、懐かしがる、悲しがる、高まる、広まる、高める、広める、…

이들은 각각의 항 안에서라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다. 존칭 및 비칭의 접미사라면, 「一殿>一さま>一さん>一君>一ちゃん>一どん>一め」에서 왼쪽을 갈수록 존칭의 정도가 높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칭의 정도가 높아진다. 복수의 접미사도 「一方>一たち>一ら>一ども」의 순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칭의 성격이 강해진다. 「一さ」와 「一み」는 형용(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미사로, 우선 생산성에서 차이가 있다. 「一さ」는 생산성이 아주 높고 형용사와 형용동사 모두를 명사화시킨다. 그러나 「一み」는 생산성이 낮으며 형용동사를 명사화시키는 기능은 갖지 못한다. 의미상으로 보면 「一さ」는 객관적 사항을 나타내는데 반해, 「一み」는 주관적 사항을 표현한다는 데에서 구분된다¹⁶⁾.

16) 牧野成一(1996. pp149~150.)는 「一さ」를 「サ」에 속하는 형태로, 「一み」를 「ウチ」에 속하는

- (8)a. 海の深さの平均は水深3、800メートルといわれています。
 b. この店は、深みのある味が人気です。
 (9)a. 改めて環境のありがたさを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b. 親のありがたみがわかるのは、子供を育て始めてからだと思う。

「一い」는 「四角」「丸」 같은 명사, 혹은 「赤」「青」 같은 색채 명사를 형용사로 파생시키는 접미사로, 「一い」의 생산성은 아주 높다¹⁷⁾. 동사파생 접미사도 각각의 영역이 있다. 즉 「一る」는 외래어를 비롯한 새로운 신조어 동사를 파생시킬 경우에¹⁸⁾, 「一がる」는 감정형용사를, 그리고 「一まる」「一める」는 속성형용사를 동사화시킬 때 작용한다.

나머지 접미사는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의미를 확보하고 있어서, 그것이 어기와 결합하면서 파생어 전체의 의미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접미사 중에는 다의적인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용이 간단하지는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은 접미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하나는 접미사의 의미가 하나밖에 없어 한국어로의 수용이 용이한 것과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 수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생산성이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바, 먼저 하나의 의미밖에 없어 수용이 용이한 것들이다.

- 一おき(-간격): 二日おき、三メートルおき、3人おき(に)、...
 一だらけ·一みどろ(-투성이): 借金だらけ、傷だらけ、汗だらけ、...
 一同士(-끼리): 男同士、恋人同士、会員どうし、似たものどうし、...
 一じゅう(-전체): 世界じゅう、町じゅう、一日中、夏休み中、...
 一ごと(每, -마다): 日ごと、月ごと、夜毎、日曜日毎、...
 一あて(-앞으로): 社長あて、学校あて(に)、お前当て(に)、...
 一たて(막 -한): 焼き立て(のパン)、取り立て(の野菜)、生まれたて(の赤ちゃん)、...
 一っぱなし(-한 채로 방치된): 開けっ放し(の戸)、やりっぱなし(の仕事)、...
 一よう(-방법): 言い様(が無い)、作りよう(が無い)、(その時の)笑いよう(が)...
 一け(気, -느낌): 寒気、眠気、塩気、水気、女っ気、嫌気、食い気、...
 一ぎみ(気味, -기색): 疲れ気味、遅れ気味、太り気味、焦り気味、風邪気味、...

형태로 구분하는데, 그가 말하는 「ガ」는 사무적인 것으로 감정이입이 허용되는 않는 영역이고 「ウチ」는 가족적인 것으로 감정이입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객관과 주관이라는 용어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17) 「一い」에 의한 신조어로 「ナウい、イまい、きらい、むずい、...」 등 다량 생산되고 있다. 石川美紀子ら(2006. p.26)
 18) 접미사로서 「一る」의 동사파생능력은 현대 일본 젊은층에 의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オケる、ミスる、ギャンブルる、無視る、事故る、皮肉る、...」 앞의 책, p.26

- 一放題(-싶은 대로 함):食べ放題、飲み放題、遊び放題、好き勝手放題、...
- 一らしい(정말 - 같다, -답다):ばからしい、かわいらしい、わざとらしい、子供らしい、...
- 一っぽい(그런 성향이 있다는 뜻):俗っぽい、湿っぽい、荒っぽい、子供っぽい、怒りっぽい、...
- 一がましい(마치 -하는 것 같다):弁解がましい、押し付けがましい、恩着せがましい、恨みがましい、...
- 一くさい(-냄새가 난다):焦げ臭い、ガスくさい、陰気臭い、教師くさい、年寄りくさい、...
- 一勝ち(-할 적이 많다):遅れがち、病気勝ち、曇り勝ち、涙勝ち、泣き勝ち、...
- 一びる(-같이 보인다):大人びる、田舎びる、古びる、...
- 一めく(-다워지다, 같이 보이다):春めく、田舎めく、脅迫めく、皮肉めく、
- 一めかす(-인 체하다):学者めかす、秘密めかす、親切めかす、冗談めかす、...
- 一ぶる(-인 척하다):学者ぶる、金持ちぶる、上品ぶる、もったいぶる、偉ぶる、...
- 一じみる(-이 베다, 정말이지 -이 되다):汗じみる、ほこりじみる、年寄りじみる、貧乏じみる、...
- 一ばむ(조금 - 상태이다):汗ばむ、気色ばむ、黄ばむ、青ばむ、痩せばむ、...
- 一つく(-거리다):がたつく、うろつく、ふらつく、まごつく、ちらつく、...
- 一過ぎる(너무 -하다):飲みすぎる、遅れすぎる、多すぎる、まじめすぎる、...

물론 괄호 안의 한국어 의미 등은 이들 접미사가 갖는 의미로부터 유추해 낸 것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른 형태의 변형된 어휘해석이 가능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다음의 예로 볼 다의성을 갖는 접미사들은 하나의 의미소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교육현장에서 주의를 요한다.

<一屋>

- ①-가게(장수):八百屋、魚屋、米屋、質屋、貸本屋、...
- ②-쟁이, -사람:分からず屋、やかまし屋、寒がり屋、恥ずかしがり屋、...

<一あがり>

- ①(막 종료된 상태):雨上がり、病気上がり、仕上がり、出来上がり、湯上がり、...
- ②-출신:校長あがり、海兵あがり、看護婦上がり、役人上がり、...

<一並み>

- ①-정도:人並み、例年並み、世間並み(の暮らし)、家族並みに(取り扱う)、大理石並み(の強さ)、...
- ②(줄지어 늘어서 있는 모양):家並み、歯並み、足並み、月並み、軒並み、...

<一がけ>

- ①-하는 길에, -할 때:帰りがけ(に)、寝かがけ(に)、通りがけ(に)、行きがけ(に)、起きがけ、...
- ②-차림으로:ゆかたがけ(で)、寝巻きがけ(で)、スリッパがけ(で)、...
- ③-배, -굽:二つがけ(の大きさ)、三つがけ、...
- ④-명이 앉을 수 있는:4人がけ(のいす)、...

<—どおり>

- ①-거리:銀座通り、青葉通り、海岸通り、...
- ②-정도:八分通り(完成した)、...
- ③-대로:予想通り、望み通り、計画通り、...

<—目>

- ①-째:五番目、三つ目、何人目、...
- ②-부분:切れ目、折り目、分け目、裂け目、合わせ目、...
- ③-한 듯한:細目、長目、派手目、控え目、押さえ目、落ち目、...

<—ぶり>

- ①- 상태, 상황:回復ぶり、混乱ぶり、狼狽ぶり、病氣ぶり、...
- ②-하는 태도, 모습:勉強ぶり、勤めぶり、生活ぶり、勤めぶり、話しぶり、慌てぶり、...
- ③(-의) 모습:身ぶり、手振り、口ぶり、国ぶり、戦争ぶり、男振り、子供ぶり、役人ぶり、...
- ④-만:三日ぶり、10年ぶり(の出会い)、久しぶりに、...
- ⑤(크기나 분량의 정도):大振り(の器)、小振り(の枝)、赤子の顔一つぶり、...

이상 복수의 의미를 가진 일본어 접미사 몇 개에 대해 한국어로 수용할 수 있는 번역어를 찾아내 보았다. 접미사의 의미가 하나이든 몇 개이든 이들 각각에 대한 한국어 대응어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나,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어 접미사가 개입된 문을 한국어로 수용할 때 어려운 점이 다. 이것은 일본어 접미사에 대한 한국어 대응어를 나름대로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구문에서는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가리킨다. 몇 개의 예를 제시하기로 한다.

- (10) 水を少なめにすると、かためのご飯になります。
- (11) 受取人が忙しくて留守がちです。
- (12) 戸を開けっ放しにして出かけるのは失礼だよ。
- (13) ときどき動作が芝居じみています。
- (14) あたくしも人並みに生まれたかった。
- (15) なんか青ばんだ液体が白いワイシャツに付いていた。
- (16) 更にこの女性が謎めいてみえ、好奇心が疼いた。
- (17) あの人は飲みつぶりがいいですね。一息にビールを飲んでしまうんです。
- (10)' 물은 조금 적게 하면, 꼬들꼬들한 밥이 됩니다.
- (11)' 수취인이 바빠서 자주 집을 비웁니다.
- (12)' 문을 열어놓고 나가는 것은 실례야.

- (13)' 가끔 동작이 너무 연극 같아요.
- (14)' 나도 남들처럼 태어나고 싶었다.
- (15)' 게다가 이 여성이 수수께끼처럼 보여, 호기심이 느껴졌다.
- (16)' 뭔가 푸르스름한 액체가 흰 와이셔츠에 붙어있었다.
- (17)' 저 사람은 잘 마시네요. 맥주를 단숨에 마셔버려요.

예문을 보면, 밑줄 있는 일본어 접미사가 한국어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앞에서 찾았던 한국어 대응어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이들 한국어문에 일본어 접미사 각각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접두사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접미사 교육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접미사 교육은 접미사 각각의 본래적인 의미와 더불어 구문에서 그것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나가기

본고는 일본어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일본어 접사를 고찰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때문에 접사,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어 접미사 범주에서 문제가 되는 접미사와 조동사의 경계, 그리고 접사와 어기의 경계에서 기인하는 모리오카(森岡健二)의 준접사 등은 고찰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하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일본어 접사교육의 도입부에서는 한국어 접사와 비교하면서 접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술했다. 그러한 비교를 통해, 접두사와 접미사의 분류방법이 달라지는 등 접사에 대한 개략적 이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접두사는 명사와만 결합하는 것 혹은 동사와만 결합하는 것 등 결합하는 어기의 품사에 따라 분류되는데 반해, 접미사는 명사를 파생시키는 것 혹은 동사를 파생시키는 것 등 어기와 결합했을 때 만들어지는 파생어의 품사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을 근거로, 3장과 4장에서 일본어 접두사와 접미사를 고찰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접사들은 『日本語教育事典』에 수록된 것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추출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되, 기타 森岡健二(1994)등에서도 일부 추출했다.

3장에서는 필자가 선정한 약 30개의 접두사에 대한 분류를 시도했고, 접두사의 의미고찰은 생산성이 높은 접두사를 중심으로 각각의 의미와 더불어 예가 되는

파생어를 몇 개씩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어 접두사는 대개가 한자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접두사 의미는 그 한자의 훈으로부터 의미유추가 가능함을 기술했다. 한자를 차용하지 않는 접두사들은 여기에 보조적 의미를 더하기 보다는 어기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도 언급했다. 일본어 접두사 교육에서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들어 기술했다. 하나는 한자로 표기되는 접두사의 경우, 복수의 읽는 방법을 가진 것들에 대한 주의였고, 다른 하나는 접두사 파생어로 인한 일본어 구문의 변화가 한국어로의 수용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후자의 경우는 특히 존경의 접두사 「お」와 「ご」에 의한 파생어구문에서 많이 나타남도 확인했다.

4장 일본어 접미사에서는 약 80개의 접미사에 대한 분류를 시도했으며,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를 중심으로 각각의 의미분석과 더불어 예가 되는 파생어를 일부 제시했다. 접미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여기에 일정한 문법성만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접미사 자체에 일정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들이다. 본고는 이 둘을 구분해 기술했다. 전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문법적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살폈고, 후자에 대해서는 해당 접미사를 한국어로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어를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어는 실제 접미사파생어 구문을 한국어로 수용하다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많다. 이 점이 일본어 접미사를 한국인 학습자에게 교육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임을 명확히 했다.

【參考文獻】

- 윤영민(2009), '현대한일어 파생접사의 비교연구', 「일어일문학연구」 71, 한국일어
일문학회
- 홍사만(2002), 『한·일어 대조분석』, 역락.
- 황찬호 등(1988), 『韓日語對照分析』, 명지출판사.
- 石川美紀子ら(2006), 『日本語文法』, 三弥井書店、p.26.
- 影山太郎(1993), 『文法と語構成』, ひすじ書房.
- 坂倉篤義(1966), 『語構成の研究』, 角川書店.
- 日本語教育学会編(1982),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 牧野成一(1996), 『ウチとソトの言語文化学』, アルク、pp.149~150.
- 森岡健二(1994), 『日本文法体系論』, 明治書院.
- 森田良行ら(1989), 『ケーススタディ日本語の語彙』, 桜楓社、p58~64.

要 旨

外国語の教育において語彙教育はとても大事なものであろう。本稿は韓国人の日本語学習者を対象に日本語の語彙教育の一つとして派生語を作る接頭辞と接尾辞について考察した。筆者は本格的に日本語の接辞を述べる前に、まず導入部においての効果的な接辞教育の方法で韓国語の接辞と比較することを提案してみた。二言語の仕組みが類似しているため、この方法をとると、接頭辞と接尾辞それぞれの特徴を含め接辞に対する基本的な理解が学習者にとって簡単にできると思うからである。一方、接頭辞と接尾辞に分けて述べた本研究では各々のところで次のようなことがまとめられた。第一、教育的な観点での効果的な接頭辞と接尾辞との下位分類の仕方。第二、生産性の高い接頭辞と接尾辞を中心とした韓国語への対応語探し及び例示語による確認。第三、日本語の派生語構文を韓国語に受け入れる時出会うようになる難点等を、派生語教育の情報ものとして提供してみた。

キーワード：教育的な観点、派生語、接辞、語基、接頭辞、接尾辞、

투 고 : 2010. 8. 31
1차 심사 : 2010. 9. 11
2차 심사 : 2010. 9. 25